



통계로 보는 1인가구의 급증 현상, 문제점과 대책

박 성 현*

The Rapid Increasing Phenomena of Single-Member Households in the Statistical Viewpoint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Park, Sung Hyun*

ABSTRACT

The social structure of Korea has been changed, and a typical change is the rapid increase of single-member households. The 「2020 Statistics for Single-member Households」 publish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shows that the ratio of single-member households was 30.2% as of the end of 2019, which means that the ratio becomes over 30%, the first case of Korean history. In order to see the statistical status of single-member households, the changes in numbers of the whole households and single-member households in the past 5 years are shown including the ratio of single-member households. Also the ratios of single-member households by sex and age, the increasing pattern of benefit eligibility of single-member households for the national basic

Received: May 10, 2021

*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제1분과 회원

livelihood security, the residential types of single-member households are illustrated.

Next, the reasons why the single-member households are increasing are elaborated. The decreasing of marriage rate, increasing of divorce rate, change of people's value criteria on marriage · divorce · childbirth, etc. are studied. Also the results by the rapid increase of single-member households are investigated. They are, for instance, the decrease of total fertility rate, the influence on real estate and food industry, and the influence on people's health and quality of life.

Finally, the ways to stop the increase of one-member households and to take care of the one-member households are discussed. They are the national policy to suppress the increase of one-member households, the welfare programs for one-member households, the health-care programs by local governments for one-member households, the employment program for young people, and so on. For the conclusion, to make our society healthier, the concept of 'family' should be strengthened to decrease the single-member households. Also for the bright future of our society, marriage and childbirth should be encouraged,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should be increased.

Key words : Single-member househol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sidential type, Marriage rate, Divorce rate, Total fertility rate, Medical expense

초 록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는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변화는 혼자 살고 있는 1인가구의 급증이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의하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1인가구의 비중이 30.2%로, 30%를 상회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1인가구의 통계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5년간 전체 가구 수와 1인가구 수의 변화, 1인가구의 비중, 성별 · 연령별 1인가구의 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1인가구의 증가 현상, 1인가구의 주거 유형과 주택 점유 형태 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1인가구가 급증하는 원인들을 살펴본다. 혼인율의 하락현상, 이혼율의 증가, 국민의 결혼 · 이혼 · 출산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리고 1인 가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결과로 합계출산율의 하락, 부동산 및 식품산업에 주는 영향, 국민 건강 및 삶의 질에 주는 영향 등을 조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의 급증을 막고 이들을 돌보는 방안들로, 1인가구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 정책의 시행, 1인가구의 복지 및 생활 형편 돌보기, 지자체에서 1인가구의 건강 돌봄 프로그램 확산, 1인가구 젊은이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1인가구를 줄일 수 있도록 '가족'의 개념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합계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를 지적하였다.

주제어 : 1인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유형, 혼인율, 이혼율, 합계출산율, 의료비

목 차	
I. 서론	IV. 1인가구에 대한 대책
II. 1인가구는 왜 급증하는가?	V. 결론
III. 1인가구 증가로 발생하는 결과	참고문헌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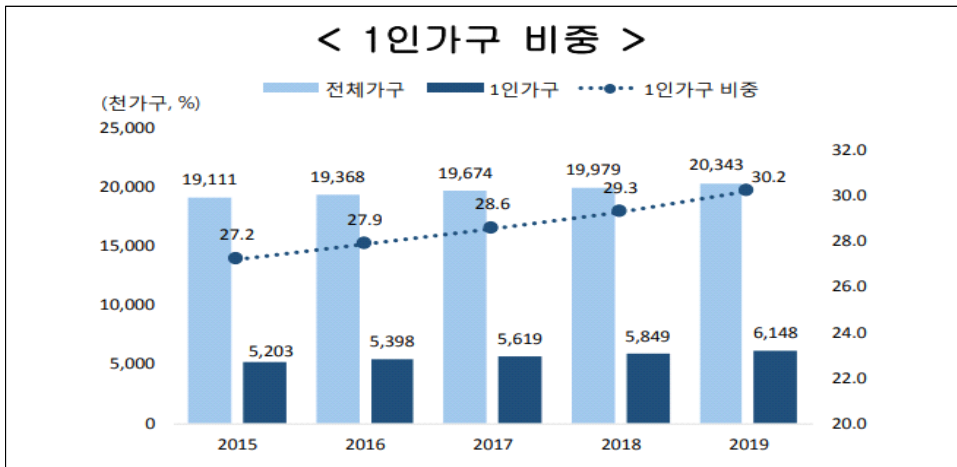
1. 통계적으로 고찰한 1인가구의 급증 현상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는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변화는 1인가구(single-member household)의 급증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동안 대가족제도가었지만,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핵가족화 되었고, 또 급변하는 정보화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노총각, 노처녀가 증가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급증하면서 1인가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가구(家口)와 세대(世帶)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는 가구는 1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노총각이나 노처녀가 원룸에 혼자 살고 있다면 이들도 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는 세대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

다. 주민등록상의 세대는 인구 이동상황을 파악하려는 행정적인 목적에 따른 것으로, 주민등록으로 그 수가 파악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의 급증 현상과 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회학자, 심리학자, 보건학자 등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변미리(2015), 이여봉(2017), 김대일(2018) 등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통계적인 측면에서 1인가구의 급증 현상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대책 등을 통계학자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통계청(2020a)은 작년 12월 8일에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림 1>과 같이 지난 2015~2019년의 기간 동안 전체 가구에 비하여 증가하는 1인가구 수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 실리는 1인가구 관련 통계들은 대부분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얻은 것들이다.



<그림 1> 1인가구 비중 증가 추세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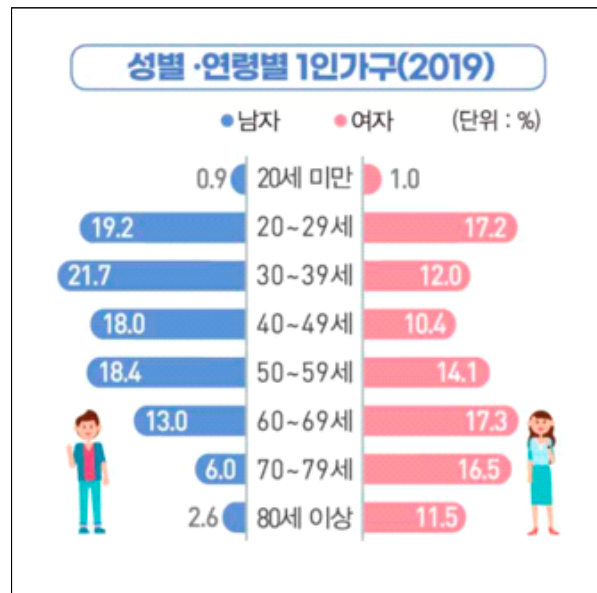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에 12.7%이었으나 20년 후인 2015년에는 2배 이상인 27.2%가 되었다. 4년 후인 2019년에 우리나라 전체 20,343,188 가구 중 약 614.8만 가구가 1인가구가 되어, 드디어 30%를 넘는 30.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제는 10가구 중 3가구에서 단 한명이 혼자 사는 사회가 되었다. 2인 이상의 가구의 비중은 2인(27.8%), 3인(20.7%), 4인

통계로 보는 1인가구의 급증 현상, 문제점과 대책

(16.2%), 5인(3.9%), 6인 이상(1.2%)으로, 1인과 2인 가구의 비중을 합하면 58.0%로 대략 10가구 중 6가구에서 2인 이하가 사는 셈이다. 2019년에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51,703,098명이니, 한 가구에는 평균 2.5명이 살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1인가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7년에는 전체 가구의 32.8%, 2047년에는 37.3%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1인가구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2. 성별·연령별 1인가구

2019년의 1인가구 614.8만 가구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비중이 큰 연령대는 20대(18.2%), 30대(16.8%), 50대(16.3%), 60대(15.2%)의 순이다. 1인가구를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해보면 <그림 2>와 같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으며, 남자는 30대(21.7%), 20대(19.2%), 50대(18.4%) 순으로 많고, 여자는 60대(17.3%), 20대(17.2%), 70대(16.5%) 순이다. 즉, 남자는 30대 노총각이 혼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여자는 60대에 미망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보겠다. 1인가구는 성별로는 남자(49.7%)와 여자(50.3%)의 비중이 거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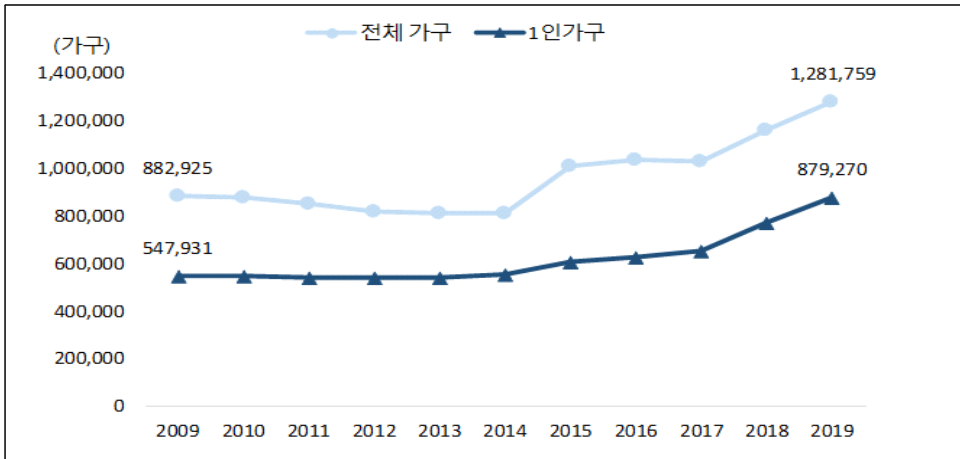
<그림 2> 1인가구 성·연령별 비중 (자료: 통계청)

통계청에서 밝히는 1인가구 수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수를 전체 22,663,240세대라고 발표하고, 이 중 38.14%인 8,642,826세대가 1인 세대라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는 2019년 말 기준 가구 수가 20,343,188로, 행정안전부의 1인 세대수가 통계청의 1인가구 수보다 더 많다. 이런 차이는 가구와 세대의 개념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다루기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1인가구의 급증

2018년의 1인가구의 연소득은 2,116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연소득이 5,828만 원인 것에 비교하면 36.3% 정도로, 1인가구가 더 가난하게 산다. 이러한 연소득은 2019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을 받는 1인가구는 약 87만 9천여 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전체 가구 3가구 중 2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월 878,597원(1인가구 기준)이다.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면 그 증가 속도를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1인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547,931가구이었으나 10년 후인 2019년에는 879,270가구로 60.5% 증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가구에서는 2009년에 882,925가구에서 2019년에 1,281,759가구로 증가하였으므로 10년간에 45.2% 증가한 셈이다. 1인가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1인가구가 가난하게 사는 가구가 많으며,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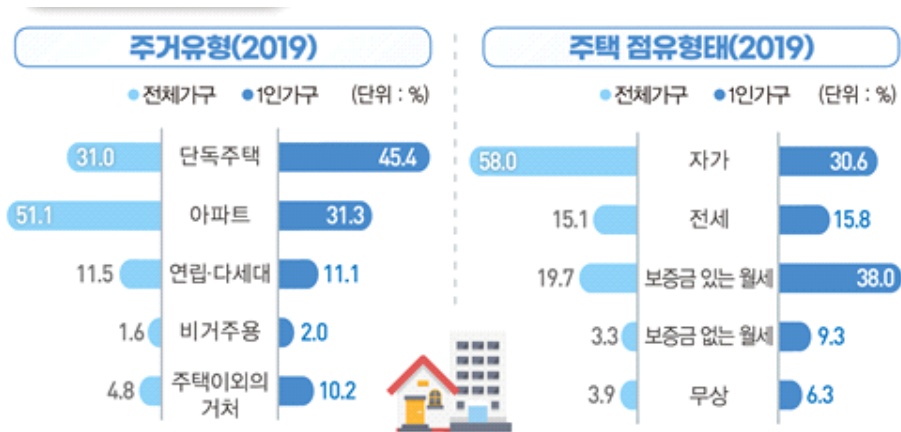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1인가구의 급증 현상, 문제점과 대책



〈그림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증가 추이 (자료: 통계청)

4. 1인가구의 주거 유형과 주택 점유 형태

1인가구의 주거 유형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1인가구와 전체 가구를 비교하여 보면 1인가구(45.4%)는 전체 가구(31.0%)보다 단독주택에 더 많이 살고, 아파트에서는 전체 가구(51.1%)보다 1인가구(31.3%)가 더 적게 산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용 단독주택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도 1인가구는 10.2%가 살고 있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림 4〉 1인가구 주거유형 및 주택 점유형태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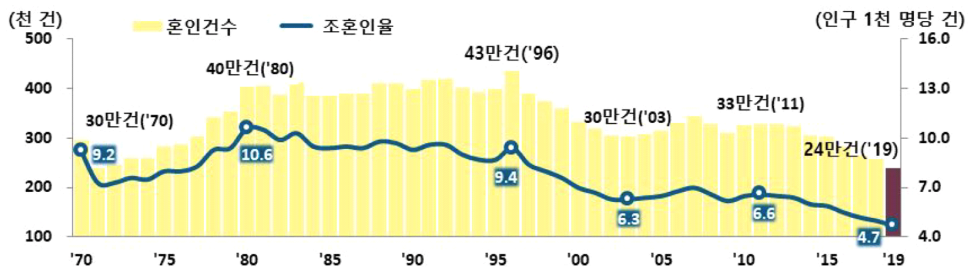
1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전체 가구(58.0%)에 비하여 자가 비율이 30.6%로 많이 떨어지며, ‘보증금 및 월세 비중’(38.0%)과 ‘보증금 없는 월세 비중’(9.3%)이 높아, 1인가구 10가구 중 거의 반(정확히 47.3%)이 월세에 의존하는 주택 점유형태를 가지고 있다.

II. 1인가구는 왜 급증하는가?

1. 혼인율의 하락

1인가구의 급증 현상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녀의 수가 늘어나고, 나이 들어 배우자를 잃고 독거하거나 이혼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림 2>에서 보면 1인가구의 20대와 30대가 합치면 남성은 40.9%이고 여성은 29.2%로, 남성이 높은 편이다. 60세 이상은 남성은 21.6%, 여성은 45.3%로 여성이 높은 편이다. 이들 20대와 30대는 결혼 적령기임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로 지낸다는 것은 대부분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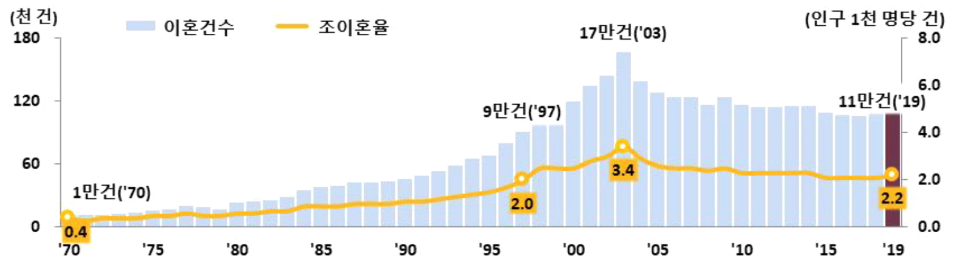
1인가구의 증가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통계청(2020c)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혼인건수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에 4.7건으로 지난 50년 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2020년도 인구동향을 보면 혼인건수는 21만 건으로 2019년보다 더 감소하였고, 조혼인율도 4.2건으로 더욱 감소하고 있다. 조혼인율이 가장 높았던 1980년의 10.6건에 비교하면 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그림 5>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추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이혼율의 증가

다음으로 1인가구의 증가는 이혼과도 관련이 있다. 이혼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그림 6>을 보면 이혼건수는 1970년에 1만 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는 17만 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그 후 조금 감소한 후 2019년에 11만(정확히는 11만 831건) 건 근처에서 머물러 있다. 인구 1천 명당 이혼율을 나타내는 조이혼율도 최근에는 2.2건 근처에 있다. 그러나 2019년에 조혼인율이 4.7건인데 비교하여, 조이혼율이 2.2건이라는 것은 우리사회에 이혼율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현상이 1인가구의 급증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에 통계청(2020c)에서 발표한 인구동향에 의하면 2020년 이혼건수는 106,500건으로 2019년과 비교하여 조금 감소하였으나 거의 유사하고, 조이혼율은 2.1건으로 2019년과 거의 유사하다. 결국 전반적으로 혼인건수 감소와 이혼건수의 증가는 1인가구 급증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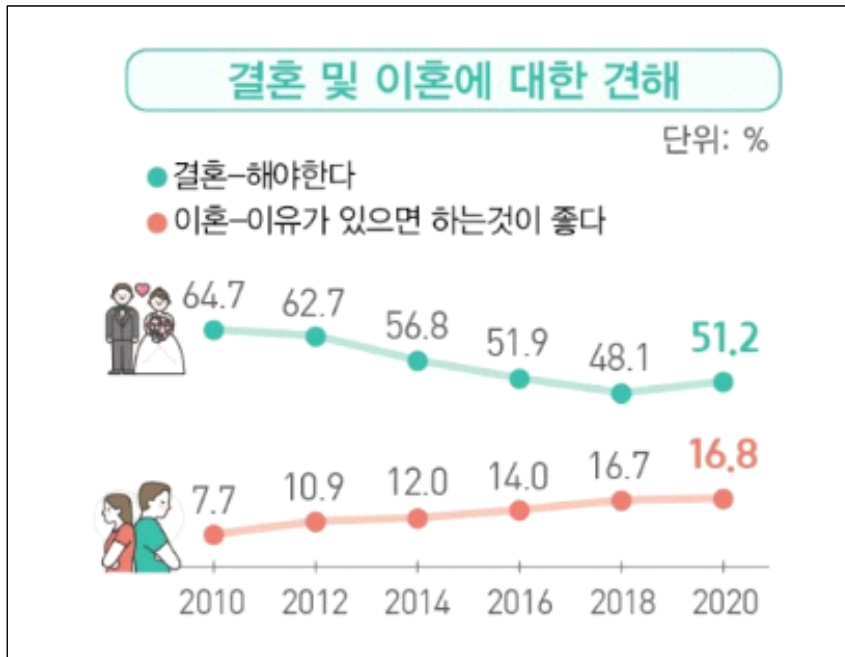


<그림 6>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변화

1인가구가 급증하는 또 다른 이유로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한국은행(202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젊은층의 가치관이 변한 배경에는 초(超) 경쟁문화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서 젊은층은 “인구와 자원의 집중화로 대도시·수도권 내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그 외 지역에선 대도시·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며, “미래(출산)를 선택하기 보다는 현실(생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미래가 불확실한 젊은층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양질의 일자리 확보, 결혼, 집 장만, 자녀 양육 등에서 자신이 없는 젊은층은 현실을 살아가기 급급하여 결혼을 미루고 결국 1인가구로 살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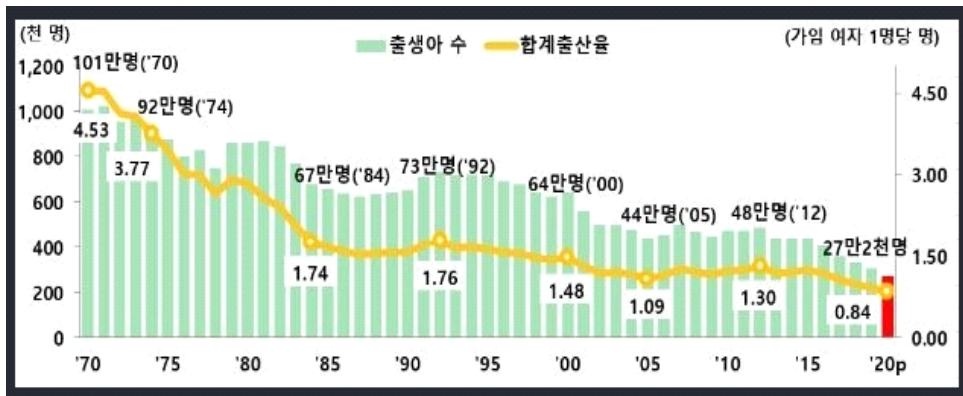
〈그림 7〉 결혼관과 이혼관의 변화 (자료: 통계청)

통계청(2020b)의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20년에 51.2%로, 10년 전인 2010년의 64.7%에서 많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혼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한 이혼을 선호도도 2020년에 16.8%로, 10년 전에는 7.7%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20대와 30대에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낮아서, 20대는 35.4%, 30대는 42.2%에 지나지 않는다.

III. 1인가구 증가로 발생하는 결과

1. 합계출산율의 하락

1인가구의 급증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 현상들은 무수히 많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합계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문제이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최근에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거나 1명만 낳고, 또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미혼 남·여성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림 8>에 있는 것과 같이 1970년에는 4.53명이었는데, 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19년에 0.92명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0.84명으로 최저값을 기록했다. 출생아의 수도 1970년에는 101만 명이었으나, 2019년에 30만 3천명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27만 2천명으로 3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로 볼 때에는 인구재앙이요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림 8>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1970~2020, 통계청)

2. 부동산 및 식품산업에 주는 영향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고서를 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전체 가구는 자가(58.0%), 보증금 있는 월세(19.7%), 전세(15.1%) 순이나, 1인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38.0%), 자가(30.6%), 전세

(15.8%), 보증금 없는 월세(9.3%, 사글세, 연세, 일세 등을 냄), 무상(6.3%)의 순이다. 월세가 47.3%로 가장 많다. 최근에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월세나 전세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등의 부동산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1인가구의 급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데, 1인가구가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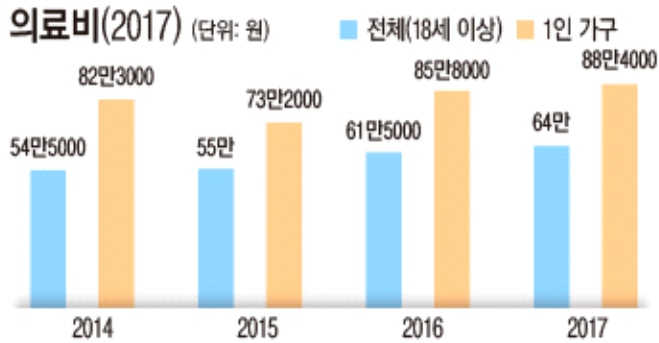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1인가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승리할 확률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정치인들은 1인가구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정치인들이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자주 발표하는 것도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1인가구의 간편식(즉석 섭취 식품) 이용을 보면, 주 1회 이상 간편식을 구매한다는 1인가구의 비율은 2018년에 38.7%이었으나 2019년에는 47.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가구로 보면 간편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2018년에 33.1%이었으나 2019년에는 40.7%였다. 1인가구나 전체 가구의 간편식 이용 비율이 모두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1인가구의 간편식 이용이 더 높고, 그 증가율도 더 빠르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간편식 이용 비중이 전체 가구에서 더욱 증대될 것이고, 1인가구의 간편식 사용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간편식을 만드는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3. 국민 건강 및 삶의 질에 주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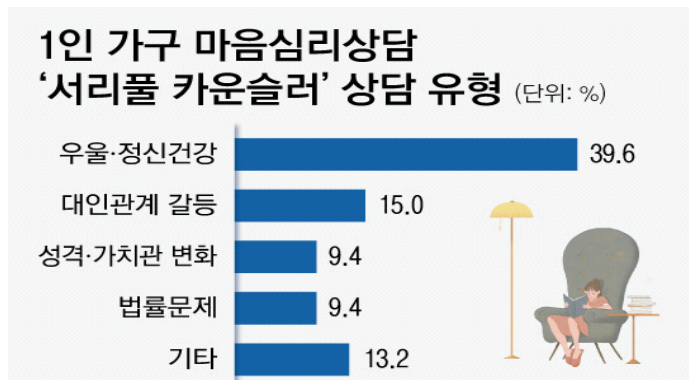
1인가구는 얼마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이 장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지만, 큰 단점으로는 두 명 이상이 사는 가구와 비교할 때, 신체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인가구는 두명 이상이 사는 가구에 비하여, 간편식도 자주하고 혼술도 자주하고 외롭게 지내다 보니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인 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88만 4,000원으로, 18세 이상 전체 인구의 연간 의료비가 64만원인 것에 비해 약 1.4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1인가구와 18세 이상 인구의 연간 의료비 격차도 2014년(27만 8,000원), 2015년(18만 2,000원), 2016년(24만 3,000원), 2017년(24만 4,000원)으로, 대략 23만 7,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로 보는 1인가구의 급증 현상, 문제점과 대책



〈그림 9〉 급증하는 1인가구 의료비 (자료: 통계청)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생기는 불안감, 정신 건강 문제 등 심리적인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초구의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 17만 3,183가구 중 33.6%(5만 8,245가구)가 1인가구 일 정도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다. 서초구에서는 1인가구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주는 프로그램으로 ‘서리풀 카운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 이 프로그램의 실적에 의하면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정신건강’ 상담이 전체의 39.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인관계 갈등이다. 따라서 1인가구가 갖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신건강 상의 문제이다.



〈그림 10〉 자료: 서초구, 그림: 스카이드일리 (2021.5.3.일자)

1인가구의 증가는 국민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있다. 경제개발기구(OECD)에서 2018년에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지표(BLI; Better Life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40개 조사대상국(38개 OECD 회원국과 러시아와 브라질 포함) 중에서 30위

로 나쁜 편이다. 이 조사는 11개 영역(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는데, 이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인 40위를 기록한 부분이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지원관계망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한다. 그런데 이 비율이 한국은 78%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40개국의 평균 비율은 89%였다. 즉, 한국인은 100명 중 22명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혹은 이웃이 없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지원관계망의 질이 최악이다. 이런 지원관계망의 질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이유로 1인가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노년이 되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IV. 1인가구에 대한 대책

1인가구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이에 관계없이 혼자 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특히 결혼할 나이임에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려 국가적으로도 재앙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혼기가 된 젊은이들에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국가 정책을 펴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여 독고노인이 된 경우에 1인가구로 남아있게 하는 것도 피해야 할 과제이다.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식과 같이 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시설 등에서 독고노인들이 같이 사는 방안도 국가적인 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1인가구의 평균연소득이 전체 가구의 평균연소득에 비해 36.3% 수준으로 소득이 적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3가구 중 2가구 정도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1인가구의 복지, 생활형편 등을 보살피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1인가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가 월세로 살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거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1인가구 중에서도 저소득층인 청년들이나 노인들의 주택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이들의 경우 고시원이나 옥탑방, 반지하 같이 열

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가 흔한 데,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들을 위해서도 신규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고, 값싸게 보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월세가 급등하지 않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도 중요할 것이다.

상당히 많은 1인가구들은 외로움의 문제나 소통의 결여, 여러 경제적 문제 등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심하면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고, 고독사로도 직결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1인가구를 찾아내어 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인 1인가구의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취업프로그램 제공은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V. 결론

아직까지 1인가구의 급증 현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반만년 역사에서 오늘날과 같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30.2%(2019년 기준)를 점유하는 시기가 없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부부가 같이 살고,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사는 인생이 정신적으로 기본적인 행복한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있다. 가족과 같이 하는 시간 자체가 인간에게는 행복한 것이다. 1인가구는 외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되기 쉽다. 또한 주위 사람들과 관계 단절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심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끼니를 거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몸을 상하는 경우도 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는 의료비도 더 들고 있다.

한 인생을 100년이라고 볼 때, 각 개인이 삶의 전쟁터에서 평생 옆에 두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전우는 '가족'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1인가구가 줄어들기를 저자는 바란다. 가족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의 섭리라고도 생각한다. 이러한 섭리를 어기고 1인가구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결혼과 출산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결혼하고 출산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부부가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인생 역정을 살아

가는 것이 인생살이의 지혜이며, 인생의 보람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즉, 탄생하는 아이들보다 죽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적령기에 도달한 젊은층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의 합계출산율이 0.84로 1 이하로 떨어졌고, 이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적게 낳고, 아이를 낳 수 있는 처녀가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합계출산율이 2.1이 되어야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한다. 합계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과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국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김대일 (2018); 성·연령별 1인가구의 확대 양상, 경제학연구, 66권 2호, p. 5-43, 한국경제학회 발행.
-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권 3호, p. 551-573, 한국심리학회 발행.
- 이여봉 (2017); 1인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년 10월 통권 제252호, p. 64-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 통계청 (2020a);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12월 8일 발표.
- 통계청 (2020b); 2020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결과, 통계청, 2021년 3월 25일 발표.
- 통계청 (2020c); 2020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한국은행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공동저자(김민식, 김도완, 박동훈, 이진기), 2020년 12월 30일 발행.

